



신혜선

“20대 여배우 누가 기근이래”

배우 신혜선·채수빈
아역·연극 등 연기력 탄탄
드라마서 주·조연 넘나들며
다양한 캐릭터로 존재감 과시



채수빈

배우 신혜선(28)과 채수빈(23)이 20대 여배우 기근을 뚫고 꽃을 활짝 피우고 있다.

두 배우 모두 지난해를 기점으로 부상하기 시작해 1년여 넘이 활동 중이다. 최근에는 나란히 주인공으로도 우뚝 서며 앞날을 더욱 기대하게 만든다.

환철한 키, 기본부터 다진 연기력에 성형 안한 자연스러운 얼굴이 공통점인 두 배우에 대해 방송가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 단역부터 주인공까지...신혜선, 날아오르다
신혜선은 예뻐고 귀여운 얼굴이라 아담한 듯하지만 키가 171cm다. 그래서 열이면 열 그의 키가 생각보다 큰 것에 놀라곤 한다. 세종대 연영과를 휴학하고 연기에 뛰어들 그는 올해 스물여덟. 혜성처럼 등장한 게 아니라 남모르는 무명의 시간을 오래 겪었다.

신혜선이 눈에 띄기 시작한 것은 2015년 MBC TV ‘그녀는 예뻤다’에서 조연 ‘한설’을 맡으면서다. 도도하고 새침하지만 감성적이고 귀여운 패션지 기자 ‘한설’이 드라마의 인기를 타고 시청자의 눈에 띄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KBS 2TV 주말극 ‘아이가 다섯’에 캐스팅됐는데 이게 대박이 나면서 기회의 문이 활짝 열렸다.

신혜선의 강점은 극과 극의 이미지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아이가 다섯’에서 맡은 ‘이연태’는 ‘그녀는 예뻤다’의 ‘한설’과 180도 다른 이미지였다. 참하고 조신하고 순수한 캐릭터. 신혜선이 ‘그녀는 예뻤다’ 직전 tvN ‘오 나의 귀신님’에서도 세상에 다시 없을 착하고 조용한 여성을 연기했던 것을 기억한다면 그의 변신이 더욱 재미있게 다가온다.

신혜선은 ‘아이가 다섯’ 이후 SBS TV ‘푸른 바다의 전설’에서 다시 도도한 역할로 ‘돌변’했고, tvN ‘비밀의 숲’에서는 이전까지와는 또다른 제3의 캐릭터로 존재감을 과시했다. 아버지의 누명을 벗기기 위해 물불 안 가리는

신참 검사 ‘영은수’ 캐릭터는 ‘비밀의 숲’에서 내내 관심을 끌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9월2일 시작하는 KBS 2TV 주말극 ‘황금빛 내 인생’의 여주인공을 거머쥐었다. ‘아이가 다섯’ 이후 1년 만에 KBS 주말극의 조연에서 주인공으로 올라선 것이다.

신혜선의 소속사 YNK엔터테인먼트의 김민수 대표는 “신혜선은 성격이 순수하고 다재로운 매력 있는 배우”라며 “무명 시절 겪으며 혼자 고생도 많이 했고 그 과정에서 연기적으로도 단련해졌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신혜선을 보면 사람에게 다 때가 있는 것 같다. 신혜선은 몇년 전과 지금이나 바뀐 게 없는데 지금 빛을 보는 듯하다”며 “지금 많이 찾아주시는 만큼 기회가 왔을 때 잘 잡아서 좋은 모습,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드릴 것”이라고 덧붙였다.

소속사는 신혜선에 대해 “성형을 안 했고 치아 교정만 했다”고 전했다. ◇ 길거리 캐스팅돼 연극서 훈련...채수빈, 질주하다
채수빈은 고2 때 지금의 매니저인 이성환 토인엔터테인먼트 대표에게 길거리 캐스팅됐다.

이 대표는 “겨울날 만났는데 느낌이 아주 좋았다”며 “그때부터 연기 훈련을 하면서 오늘을 준비했다”고 밝혔다. 167cm의 큰 키, 스포츠샷 ‘꽃피’인 채수빈은 건국대 연영과를 휴학 중이다. 그는 대학에 입학한 후 독립영화에 잇따라 출연하며 연기를 시작했고 2014년과 2016년에는 연극 무대에 서며 기본기를 다져나갔다.

시청자에게는 지난해 KBS 2TV ‘구르미 그린 달빛’을 통해 눈에 띄었지만, 이미 오랜 기간 준비를 해온 배우다. ‘블랙버드’ 등의 연극에서 채수빈과 공연한 대선배 조재현이 “요즘 젊은 배우 중 눈에 띈다”며 공개적으로 칭찬하기도 했다.

‘구르미 그린 달빛’ 이후 채수빈은 MBC TV ‘역적: 백성을 훔친 도적’을 거쳐 지난 4일 시작한 KBS 2TV 금토극 ‘최강 배달꾼’에서는 여주인공을 꿰찼다. 빠른 속도의 ‘승진’.

그러나 소속사의 생각은 다르다. 이 대표는 “독립영화, 연극 등을 통해 기본기를 다지며 오랜 기간 준비했다”고 설명했다. 어느날 갑자기 온 좋게 기회를 얻은 경우는 아니라는 것이다.

채수빈은 또한 ‘최강 배달꾼’ 촬영 초반 KBS 2TV 단막극도 겸치기 활영했다. ‘구르미 그린 달빛’에서 인연을 맺었던 PD의 연출작이라 시간을 쪼개 활영했다. 다음달 3일 방송되는 ‘우리가 계절이라면’이다.

이 대표는 “자연스러운 외모에 연기력도 좋게 봐주셔서 여기저기서 러브콜이 이어지고 있다”며 “서두르지 않고 차근차근 단계를 밟아 온 게 좋은 결과를 낸 것 같다”고 말했다.

채수빈 역시 다양한 캐릭터를 소화 중이다. ‘구르미 그린 달빛’에서는 조신한 모습, ‘역적’에서는 활발한 모습을 보여줬던 그는 ‘최강 배달꾼’에서는 세시미와 액션감각까지 과시하고 있다.

이 대표는 “채수빈의 가능성을 높게 봐주셔서 감사하다”며 “정점까지 쉬지 않고 달려보자는 생각”이라고 말했다.

채수빈의 소속사도 “성형을 안 했고 치아 교정만 했다”고 전했다. / 연합뉴스

영화 ‘장산범’ 100만 관객 돌파



영화 ‘장산범’ 관객 100만 돌파 기념사진

한국 공포영화 4년 만의 쾌거

영화 ‘장산범’이 한국 공포 스릴러 영화 장르에서 4년 만에 100만 관객을 돌파하는 기록을 세웠다.

27일 배급사 뉴에 따르면 ‘장산범’은 개봉 10일째인 지난 26일 10만2천548명의 관객을 더하며 누적관객 103만5천308명을 기록했다.

한국 공포 스릴러 영화가 관객 100만 돌파 기록을 세운 것은 지난 2013년 개봉한 ‘더 웹툰: 예고살인’ 이후 4년 만이다.

배급사 측은 “‘장산범’은 여름 성수기 경쟁작들 사이에서 존재감을 자랑하며 ‘장화, 홍련’, ‘여고괴담’ 등으로 대표됐던 한국형 공포 스릴러 영화의 부활을 알렸다”며 “특히 ‘장산범’의 흥행 속도는 ‘더 웹툰: 예고살인’ 보다 빠른 것으로 장기 흥행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다”고 말했다.

엄정아 주연의 ‘장산범’은 목소리를 훔쳐 내 사람을 흘린다는 ‘장산범’을 둘러싸고 한 가족에게 일어나는 미스터리한 이야기를 그렸다. / 연합뉴스

‘곡성’ 광도원 황금촬영상 영화제 연기대상

남녀 주연상은 박해일·공효진

배우 광도원(사진)이 제37회 황금촬영상 영화제 시상식에서 연기대상을 받았다.

27일 영화제 측에 따르면 광도원은 전년 가평군 자라섬에서 열린 황금촬영상 시상식에서 ‘곡성’으로 연기대상을 받았다.

남녀 주연상은 ‘덕혜옹주’의 박해일과 ‘미생’의 공효진에게 각각 돌아갔으며, ‘밀정’의 엄태구와 한지민이 남녀 조연상을 받았다.

신인 여우상은 ‘지렁이’의 박나아가, 신인남우상은 ‘인천상륙작전’의 김희진과 ‘혼자’의 이주원이 각각 수상했고, 정일성 촬영감독, 배우 신성일과 장미희 등 3명이 공로상을 받았다.

작품상은 ‘밀정’(위너브러더스 제작), 감독상은 ‘덕혜옹주’의 허진호 감독이 수상했다. / 연합뉴스



TV 프로그램 28일 ★이 프로그램은 방송사 사정에 따라 바뀔 수 있습니다.

	KBS1	KBS2	MBC	KBC / SBS
6	00 KBS 뉴스광장	10 걸어서 세계속으로(재)	00 MBC 뉴스투데이 1~2부	00 모닝와이드 1~2부
7	50 인간극장	00 생방송 아침이 좋다	20 광주MBC뉴스투데이 50 훈장 오순남	30 KBC 모닝 730
8	25 아침마당	00 KBS 아침 뉴스타임	30 생방송 오늘 아침	25 닥터 365 30 달콤한 원수
9	30 KBS 뉴스	00 꽃피어라 달순아 40 여유만만	30 MBC 생활뉴스 50 이유정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	10 좋은 아침
10	00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40 지추촌 뉴스		10 SBS 뉴스 25 SBS 생활경제 40 KBC 생활뉴스
11	00 UHD 명품역사관 정도전 (재) 50 숨터(재)	00 살림하는 남자들(재)		00 꾸러기 탐구생활 30 요리조리 맛있는 수업
12	00 KBS 뉴스 12	00 학교 2017(재)	00 MBC 정오 뉴스 20 문화사색	00 SBS 12뉴스 25 민방 네트워크 뉴스 50 지식 통조림 55 특독 보행실계
1	00 네트워크기획 문화산책 50 연중기획-빛고를 행복아카데미		10 헬로키키 아하! 동물탐대 2 55 드림 주니어 스페셜	55 닥터 365
2	50 콘서트 필(재)	00 KBS 뉴스타임 10 영화가 좋다(재)	25 지오메카 55 꾸러기 식사교실	00 뉴스브리핑
3	30 공감다큐. 사람(재) 55 숨터(재)	00 자동공부책상 위키 2 30 TV 유치원	25 텔레몬스터 30 별버머(재)	
4	00 4시 뉴스집중	00 여유만만	05 휴먼다큐 사람이 좋다 스페셜	00 영재발굴단
5	00 KBS 뉴스 5 30 전국을 달린다 40 남도 지오그래피	00 VJ 특공대(재)	00 MBC 이브닝 뉴스 40 왕은 사랑한다 (재)	00 SBS 오 뉴스 55 KBC 저녁뉴스
6	00 6시 내고향 55 시청자칼럼 우리 사는 세상	00 이름 없는 여자(재) 30 2TV 생생정보	10 생방송 빛남	10 조작 45 날씨와 생활 50 고향견문록 남도에 살았어라
7	00 KBS 뉴스7 35 우리말 겨우기	50 이름 없는 여자	15 돌아온 복단지 55 MBC 뉴스데스크	10 생방송 TV블로그 꿈지락
8	25 무궁화 꽃이 피었습니다	30 글로벌24 55 제보자들	55 별버머(재)	00 SBS 8 뉴스 35 KBC 8 뉴스 55 생활의 달인
9	00 KBS 뉴스9		30 왕은 사랑한다	
10	00 가요무대	00 학교 2017	00 왕은 사랑한다	00 조작
11	00 KBS 뉴스라인 40 광복절기획 KBS 스페셜 (전쟁과 여성 3부작)(재)	10 대국민 토크쇼 안녕하세요	10 테마기획 길	10 동상이몽 2 너는 내운명 1~2부
12	35 이웃집 할스(재)	35 비바 K리그	10 살맛나는 세상 스페셜 35 메이저리그 다이어리 50 경제재거진 M 스페셜	30 나이트라인

EBS1	
05:00 왕초보 영어 05:30 세계견문록 아틀라스 - 띠루 띠루 - 일가의 맛을 찾아서)	09:15 용감한 소방차 레이 09:30 쓰담쓰담 동물원 프렌즈 09:40 세상에 나쁜 개는 없다 스페셜 10:30 한국기행(재) 10:50 최고의 요리비결 (오징어파리고추볶음과 파프리카볶음) 11:20 세계테마기행(재) 12:00 EBS 정오 뉴스 12:10 글로벌 가족정착기 -한국에 산다 12:40 세상의 모든 법칙(재) 12:45 과학 다큐 비온드 (재) 13:40 엄마를 찾지마(재)
06:00 한국기행 06:20 세계테마기행 -마루의 어드벤처 07:00 정글에서 살아남기 07:30 로보카 폴리 07:45 출동! 슈퍼왕스 08:00 덩동명 유치원 1~2 08:30 꼬마버스 타요 08:45 부릉부릉! 브루미즈 09:00 방귀대장 뽕뽕이	14:30 정글에서 살아남기 15:00 요술 상자 15:05 내 친구 아서 15:20 우주탐험가 잭 15:35 모피와 친구들 15:45 코코몽 3 16:15 방귀대장 뽕뽕이(재) 16:30 두다다콩(재) 16:45 덩동명 유치원 1~2(재) 17:15 엄마 캐투리 17:30 플라워링 하트(재) 17:45 호기심나라 오키도 18:00 생방송 특목! 보니하니1~4 19:00 강철소방대 피어오르보
	19:30 EBS 뉴스 19:55 다문화 고부 열전 20:50 세계테마기행 21:30 한국기행 (명물찾아 섬만리 - 여화등등 내 사랑 비금도) 21:50 광복절 특집 (노래로 조국광복을 염원하다) 22:45 엄마를 찾지마 23:35 까칠녀어 (남자들이여, 일어나라) 24:25 세상의 모든 법칙 (연애에 밀당! 중요한 이유?) 24:30 세계의 드라마 (폴다 6부)

知天命이 보는 오늘의 운세		8월 28일(음 7월 7일 丁亥)
子	48년생 전체를 바라보는 안목이 절실하다. 60년생 간단명료한 것이 최상이다. 72년생 망심하고 있다면 목전에서 물거품이 될 수도 있으니 변화 가능성을 열어 두고 주의하시라. 84년생이 탈하지 말고 있는 것이 안전하다. 행운의 숫자 : 01, 11	42년생 격에 맞지 않으면 오히려 짐이 될 수. 54년생 의형보다는 실속이 중요하다. 66년생 심사숙고 한다면 손재를 막는다. 78년생 객관성에 근거하여 철저히 분석해 볼 필요가 있다. 90년생 확인만 잘 해도 사고를 예방한다. 행운의 숫자 : 10, 63
丑	49년생 여백의 아름다움이 훨씬 빛나리라. 61년생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고 있음도 간과해서는 아니 될 일이다. 73년생 양면성을 띠고 있다. 85년생 근원을 찾아본다면 새롭게 얻는 바가 있을 것이라. 행운의 숫자 : 60, 45	43년생 많으면 많을수록 유익할 것이다. 55년생 기본적인 절차 따르라. 67년생 정신적 휴식과 기본 전현이 절실한 때이다. 79년생 드러나지 않은 범위가 훨씬 크다는 것을 알라. 91년생 취약점을 보완한다면 따 놓는 당상이다. 행운의 숫자 : 03, 27
寅	50년생 기본 마음으로 임한다면 효율성을 높일 것이다. 62년생 안정되면서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마련되겠다. 74년생 시기를 놓친다면 결정적인 실수를 하게 돼이니 늦지 않도록 하라. 86년생 아울러 처리하는 것이 경제적이다. 행운의 숫자 : 51, 12	44년생 원리 원칙만 따지지 말고 융통성을 보인다면 부가적 이익을 꾀하라. 56년생 고뇌에 찬 하루가 될 것이니 삼기일전하여 임하자. 68년생 학습고대하여 왔던 배를 목전에 두고 있다. 80년생 기틀이 조성되리라. 행운의 숫자 : 14, 35
卯	51년생 굳이 앞서 갈 필요 없으니 서두르지 마라. 63년생 힘이드는 하루가 펼쳐질 것이니 단단히 각오하라. 75년생 다소 힘이 들더라도 소신껏 진행하면 상응하는 결과가 주어지리라. 87년생 매우 소중한 여겨야겠다. 행운의 숫자 : 73, 47	45년생 원인을 제거하지 않으면 반드시 문제가 생길 것이다. 57년생 중용의 도를 지키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오래 갈 것이다. 69년생 절실히 필요한 것이지만 융통이 쉽지 않을 것이다. 81년생 격랑에 휩쓸릴 수도 있다. 행운의 숫자 : 18, 62
辰	52년생 부담스럽고 박찬 하루가 될 것이니 각오하고 임해야 할 것이다. 64년생 충분히 의사 전달을 해야만 하는 시점이다. 76년생 비중 있게 전개될 것임에 틀림없다. 88년생 대단하기는 하지 만 자신과의 인연은 박할 것이다. 행운의 숫자 : 14, 23	46년생 성취될 가능성이 애매하다면 절대로 쉽게 정답하는 것이 아님을 알라. 58년생 빨리 포기할수록 생산적이지 않다. 70년생 말 못할 갈등에 사로잡힐 수 있다. 82년생 인위적이러면 무용지물이 되어버릴 공산이 크다. 행운의 숫자 : 40, 56
巳	53년생 마음을 어지럽히는 바가 있을 것이니 절대로 현혹되어서는 아니 된다. 65년생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77년생 새로운 것을 접하더라도 초심을 잃지 마라. 89년생 점점 수월해질 것이니 굳이 부담감을 갖을 필요는 없다. 행운의 숫자 : 28, 97	47년생 별개의 개념이니 함께 다룰 일이 아니다. 59년생 인쇄심을 발휘했을 때 성과를 거두게 된다. 71년생 폭넓은 안목과 식견이 길정을 부러리라. 83년생 상대의 갑작스런 행동이 의미하는 바가 있을 것이다. 행운의 숫자 : 21, 41